

**제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사랑(롬 8:28-30, 35-37)**

## **성경 본문**

로마서 8:28-30

<sup>28</sup>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sup>29</sup>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sup>30</sup>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35-37

<sup>35</sup>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sup>36</sup>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sup>37</sup>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들어가는 말**

최영목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캄편 신학대학이었고 지금은 이름이 위트레흐트 신학대학으로 바뀐 신학대학 방문연구원으로 있고, 지난 주 설교를 하셨던 이정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즈볼러 한인교회에 협동목사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로마서 8:28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쳐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한지 이제 28 년 됩니다. 다치기 전에 체력이 강철 같다는 말을 듣다가 목뼈가 골절되어 가슴 이하 신경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말씀이 로마서 8:28 절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불행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죄, 없는 죄 모두를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낮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서 8:28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이런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친 것은 저의 실수나 허물을 포함하여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묵상은 저의 상태를 좌절이나 절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며 여기서 모든 것에 무엇을 포함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창세기에서 요셉이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서 총리를 하면서 결국 극심한 기근에 있었던 아버지 집, 야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고 잘 대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19-20;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하면서 형들의 안심시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귀여움을 받는 막내 동생을 시기심으로 노예로 판 형들의 악한 행위와 그로 인해서 죄 없이 모함을 받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 당한 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 지파의 조상인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배경은 로마서 8:1 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자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한 다음에, 로마서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 시작하여 성도들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은 고난이나 고통을 주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심지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했던 실수나 죄와 허물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비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발생하여도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그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불행을 극복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 세기말 중반부터 20 세기 초에 이곳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신실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책들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형도 어릴 때부터 신앙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장래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라이덴 대학에서 박사학위 코스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쉬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준비를 할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며칠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아버지 안 바빙크 목사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 힘든 공부를 다 마치고 신실한 목회자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왜 데려갔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바빙크 목사님은 장남의 죽음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정리한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문 해설로 장남을 추모하는 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1.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인가요?

답. [나의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나의 몸과 영혼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과 현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고,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종속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마음 속에서 성령의 사역]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또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진실로 원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문에서는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종속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작든 크든 힘들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안 바빙크 목사님이 이 땅에서 죽은 후,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뜻하지 않게 이른 나이에 죽은 장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각자를 향한 최선이 무엇이었는지를 완전하게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이제 내게 닥친 일의 복잡한 원인을 찾는데 몰두하거나, 그 가운데 힘들어 하는 것로부터 떠나,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착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다치고 1 년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 년 정도 기도하다가 전임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권면은 종교개혁 당시 수 많은 고난 속에 살았던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하나님의 섭리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 고난 속에 협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나가는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

오늘 설교 2 번째 주제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기 앞서, 본문 말씀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고난 속에 협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나가는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어지는 29-30 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과 같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정은 따로 독립적으로 신학적 또는 철학적 사색을 위해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sup>30</sup>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된 것,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앙의 여정에서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28 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선택받은 증거가 됩니다. 스펔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 다음 주제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단순히 형통한 결과를 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29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은 단순히 각 개별 사건이 형통하게 유익한 결과를 맺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협력하여 이루는 선에 대한 요셉의 경우, 야곱 일가가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12 지파의 조상을 보존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해서 이루는 선들 역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와 각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29 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협력해서 이루는 선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지는 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2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9 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통해 그리고 고난 중에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비록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 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에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연관된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멍이 많이 나고 속도 많이 더러운 바가지 하나를 주면서 한통 가득 있는 물을 그 바가지로 떠서 다른 통에 다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떠도 다 새어나가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들은 순종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통에 물을 옮겼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을 다 옮기면서 느낀 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구멍 난 바가지는 속에 잔 때가 많이 묻어 있는 더러운 바가지였습니다. 한번 물을 뜰 때 물이 밖으로 다 샀지만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가지는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한 통에서 다른 통으로 옮겨진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바가지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협력해서 선이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아버지가 바가지에 관심을 두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29 절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제가 다친 이후에 그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유함과 평안을 가집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나온 결과입니다.

###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고난의 궁극적 목적**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하는데 있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29 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습니다. (29b)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며 동시에 고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15-16 <sup>15</sup>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sup>16</sup>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완성은 에베소서 1:10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완성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은 기쁨과 찬송으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것이며,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더욱 깊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제품도 주어진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모든 기능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커질 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욱 넓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과 고난의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 뒷부분과 같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본문으로 택한 2 번째 말씀에서 매우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순교를 말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압도되고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정복하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35-37 <sup>35</sup>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sup>36</sup>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sup>37</sup>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정복자” 앞에 하이퍼가 붙여서 “탁월한 정복자” “뛰어난 정복자”란 뜻을 가진 한 명사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sup>37</sup>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질병이라든지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한 것들을 포함한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의지력으로 계속 극복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 행복 전도사로 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이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상당한 통증을 동반하는 지병이 있었는데, 계속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수록 고난을 더욱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 권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고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적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작든 크든 고난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우연이나 운명이라 다른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더욱 알고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고난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